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50호 2011년 8월 24일 수요일 (음력 7월 25일 · 불기 2555년 · 주간)

바람이 향기를 지니려면 꽃 속을 지나야 합니다. 사회가 향기로우려면 우리 스스로 향기를 내뿜는 꽃이 돼 그런 꽃들이 모인 꽃밭을 이뤄야 합니다.

– 前 조계종교육원장 청화 스님



꿈·희망의 날개짓… 훨훨~

조계사(주지 토진)와 수덕사(주지 지운)가 내포가야산 성역화 및 조계사 방생법회를 8월 15일 서산 보원사지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사부대중은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밀렵꾼들로부터 포획해 치료한 야생조류 30수를 방생했다. 치료를 마치고 건강해진 야생조류들은 사부대중의 바람을 싣고 힘차게 보원사지 하늘로 날아올랐다. **박기범 기자 / 사진= 조계사 제공**

고려 最古 목불

강릉 보현사서 발견

강릉 보현사(주지 승원)에서 고려시대 가장 오래된 목불로 추정되는 불상이 발견됐다.

주지 승원 스님은 "사찰 내 불상을 일제 조사한 결과 보현당에 있는 보살좌상이 고려 전기인 12세기에 조성한 목조 불상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고려 전기 목불로는 유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장 오래된 고려 목불은 120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 개심사 아미타삼존불상이었다. 통일신라시대 목불로는 경남 해인사에 현존하는 비로자나불이 883년 헌강왕 9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현사는 "기존 불상과는 다른 얼굴 모습과 수인 등으로 '중국 불상이다', '들여온 지 오래되지 않았다' 는 얘기가 전해져 조사가 늦었다"고 밝혔다.

높이 70cm, 폭 44cm인 불상은 뼈대를 나무로 만들고 옷자락 등은 얇은 천에 옻칠을 해 겹겹이 붙인 목건칠불(木乾漆佛)이다.

이 불상을 조사한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은 "도드라진 특징들로 봤을 때 고려 전기의 불상이 틀림없다. 보현사 불상은 고려시대 귀족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 굉장히 화려하며 장식적"이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보현사 불상이 ▷직선 중심의 조선시대 불상과 달리 고려시대의 유려한 곡선인 점 ▷가슴의 띠 매듭이 13세기와 달리 단순한 점 ▷가사걸이 장식이 통일신라시대보다 세밀해진 점 등을 근거로 12세기 고려 전기 불상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도 불상의 조성연도를 짐작케 한다. 복장에서는 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원(至原) 29년(1292년)이라고 간행연도가 기록된 다라니 3점과 〈묘법연화경〉 4권, 길이가 8m에 이르는 필사본 다라니를 비롯해 쇠 후령통, 구슬, 각종 곡식을 싼 천주머니 등이 발견됐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사직

"건강상 이유", 16일 사표 수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최근 총무원장직을 돌연 사직했다.

천태종은 "정산 스님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8월 16일자로 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스님은 잔여 임기 2년 8개월을 앞두고 급작스레 사직했다. 이에 따라 천태종 총무원은 새 총무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 멸빈



태고종 초심원(원장 효성)은 8월 1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회의를 열어,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에게 멸빈 및 44억여 원의 배상청구 판결을 내렸다.

초심원은 운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기채 및 대여행위를 임의로 해 종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점 ▷부채 상환을 요구했으나 이행치 않고 총무원장 탄핵에 이어 삼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등 종단 혼란을 야기한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조동섭 기자**

외주위탁 수익사업 재점검할 때

재향군인회 위기 보도되자 조계종 상조사업 우려 높아

재향군인회의 5600억 부채 부도설로 인해 조계종 수익사업이 위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외주 위탁 형태의 천편일률적 조계종단 수익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C는 8월 15일 재향군인회가 2007년 이후 16개 수익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이 부진하다고 보도했다. 재향군인회가 지난달 신용평가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빚이 2898억,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성 어음이 2700억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은 지난 해 7월 재향군인회 상조회 (주)향군가족과 상조업무 협약식을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종단은 전국적으로 민간 상조 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에 의해 설립된 재향군인회가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조계종과 협약을 맺기 직전인 지난해 6월에도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일부 운영비를 도로공사 직원과 재향군인회 간부에게 상납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종단은 법에 근거한 단체라는 이유로 재향군인회 상조와 업무협약을 강행했다.

종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재무부장 도문 스님은 "재향군인회는 상조회비 중 회원비, 수납액 중 모집수당을 제외한 전액을 주식, 펀드, 부동산등 투기성 투자 및 사업을 배제한 제1금융권에 예탁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스님은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현재 고객환급의무금 대비 지급보유비율 112%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수익구조와 관련해서는 종단도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창건주 권리 어디까지 인정되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는 8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법 제정안 성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02)2011-1865

조동섭 기자

불교계 최고 영향력 '법정 스님'

〈시사저널〉 설문조사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조사 결과, 불교계에서 故 법정 스님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8월 9일자 〈시사저널〉에 따르면 종교 분야에서는 이웃 종교인들이 여전히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에서는 故 법정 스님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체 종교인 중 4위(응답율 13.5%)에 머물렀다.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으로는 응답자 중 34.7%가 故 김수환 前 추기경을 꼽았다. 김수환 前 추기경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정진석 추기경으로 조사됐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위(10.4%)를 차지했다. 故 성철 스님(9.2%)은 6위, 前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0위(1.3%)였다. **박기범 기자**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기업의 사회공헌은 당연한 의무"

범현대家 재단 설립에 조계종 환영 논평내

범현대가 그룹들이 사회복지재단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아산나눔재단' 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조계종이 환영 논평을 냈다.

조계종 대변인 정만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8월 16일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고 더 나누는 종교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조계종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기업 같은 분야에서 공적인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기여는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의무"라며 "더 많은 기업과 개인, 종교단체들이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하며 조계종 역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850호 CONTENTS

휴휴암 사태 관련 인터뷰 · 홍법 스님 2
내포가야산 성역화 선포 및 조계사 방생법회 에릭, 법정 스님 비하 발언 3
현장속으로 지율 스님 내성천 답사기 5



불교상담개발원 내부갈등 6
특집 · 석굴암 Ⅱ 14 · 16 · 17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